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누가 뛰나?

12대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6월 27일 도의회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발표를 듣고 전 의원이 선거에 임하여 위원장이 결정된다.

12대 전반기의 환경복지위원회는 하반기에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개칭하여 농생명축산품목, 농업기술원, 환경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보건국과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애인복지관을 관장하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12대 하반기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강동화 의원과 임승식 의원(가나다 순)이 자천 타천으로 불명에 오르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에 9대 10대 11대 3회에 걸쳐 연속으로 당선되어 11대 전반기에는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하반기에는 의장으로 선출되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9대 때 처음으로 시의원에 도전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정도로 주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지인이 많고, 11대 때는 시의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의원들 간에 친화력이 대단하다.

12대 전북도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어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위원장 도전에 나섰다.

강동화 · 임승식 의원 등 2명 거론

영원한 태권도맨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체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과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시의원으로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회장과 전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단 부회장을 할 정도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강 의원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강동화 의원



임승식 의원

서 소속 의원들과 소통과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임승식 의원은 정읍1 선거구가 지역구로 현재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당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의원이 많다.

정읍 지역구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서 도전과 열정의 화신이다.

위원장이 된다면 농도인 전북 농민을 위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과 코로나 이후 전정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환경과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때 의원들과 화합하여 도민을 위한 일을 최우선에 두고 소신 있는 자세로 위원회를 잘 이끌고자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도민들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농도인 전북에서 그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당찬 포부를 가지고 경륜이 탁월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민주 김성주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 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3층에서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인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입법 정책 성과와 한계를 보고하고, 대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먼저 김성주 국회의원의 '모두가 누리는 나라! 입법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이어, 각 분야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토론과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가 누리는 나라와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성과 그리고 금융, 탄소, 역사도시 전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해주신 전주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김관영 도지사와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 최경식 남원시장, 백형욱 한국식품연구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민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등 참석자들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과 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서로를 살피는 조직문화 만들자"

민생예산 신속 집행 ·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경주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간부회의장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살피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청 공무원이 유명을 달린 것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같이 근무하는 동료 간에 서로 어려움은 없는지 보살피고 서로를 살피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17일 폐회한 도의회 추경 심의에서 "도민 생활지원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 깊이 있게 심사해 준 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25년 부처 예산안의 기재부 제출이 5월 말로 다가온 만큼 국가에 산화보를 위한 각 부처와의 소통에 총력을 다하자"면서, "21일에는 세종시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도지사인 저를 비롯해 실 국장들은 중앙부처와의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기부금 신설 방침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가 국가정책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다"면서, "다자녀 가구 우대방안

등 담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타 시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정책의 테스트 베드가 되겠다는 자세로 국가적 인구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모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실내 환경 진단 · 개선 컨설팅'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끝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검진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삶과 관련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상임위원 현장방문 실시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0일 제 26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자연재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원 의원은 송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문제점 및 송화동 근린공원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최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제도 및 정책 활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충영 의원은 익산시 자전거 그라운드 대회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종선 의원은 익산 남부지역 상습 침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동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익산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집행부와 함께 원팀이 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봄철 대형산불 초동진화 체계 강화 피해 최소화

전북자치도, 산불조심기간 종료 따라 대응체계 전환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2월 1일부터 이어져 온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도·시·군·읍·면·동 258개소) 운영을 마쳤다.

다만, 건조한 날씨를 감안해 6월 말까지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산불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및 상시 동원체제로 전환한다.

올 봄 도내에서 산불은 12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4.4ha로 전년 동

기 대비 71%(29건, 17.89ha)가 감소했다. 산불 피해규모는 모두 5ha 미만의 소규모 산불로, 도내에서는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국 대비 피해규모는 6.9%에 그쳤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4건(33%),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건(17%), 기타 원인에 의한 산불 6건(50%)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기별로는 3월에 10건(83.3%), 4월에 2건(16.7%)이 발생했다.

올해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온 건조한 봄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난 3월 13

일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산불 예방홍보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진화체계(산불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을 여력 우기철 전인 6월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불대응센터 건립과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 산불 소화시설 유지관리 등 산불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산불 진화차, 산불 기계화시스템,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산불감시 시설 등 산불대비체계 구축 및 진화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기업 ·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 · 개정

김대중 도의원 대표 발의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전북자치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칼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우리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투자 초기 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 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국가 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술사 시설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월 25일, 전북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례 제 ·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재학생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 졸업생 · 대학원생까지 한정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 ·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대상자의 제적 · 기피 · 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 의원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균등한 교육요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7월 20일 전당대회

조국혁신당이 두 달 뒤 창당 이래 첫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8시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제2차 당 대표단 회의에서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당 이래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로,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 · 당규 제 ·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 선거는 7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자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뉴시스